



5000만 붉은함성 17일 밤에도 축포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예선 1차전 대한민국과 그리스의 경기가 열린 12일,광주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경기장 내 대형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면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붉은 색 티셔츠와 태극기로 만든 옷을 착용한 여성 축구팬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한국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봤느냐, 아르헨 한판 뜨자”



하늘찌르는 사기... “준비한 모든것 다보여 주겠다”

그리스를 제물 삼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 기본 좋은 첫 승리를 올린 축구대표팀 태극전사들이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맞대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은 오는 17일 요하네스버그의 사커 시티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2차전을 치르는데, 이날 승리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선수들은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정해성 코치의 주도로 파이팅을 세 번 외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아르헨티나와 일전

을 위해 새롭게 각오도 다졌다. 선수들은 이날 완승을 이미 예감한 듯했다. 그리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했고, 이날 그라운드에서 준비한 것을 다 풀어놓았다는 반응이다. 미드필더 이정용(불탄)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우리도 찬스를 만들어내고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기분이 좋다”면서 “첫 경기에서 이겼고, 내용도 좋았다. 다음 경기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 비디오를 못 봐 실력이 궁금하다”면서 “오

늘 경기는 이제 있고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격수 박주영(모나코) 역시 “너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고 하나가 되려는 선수들의 다짐이 좋았다”며 경기 결과와 내용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팀이 가진 것을 아직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는 결과를 떠나 다 보여주고 싶다”며 강호 아르헨티나와 맞대결에서 후회 없는 한 판 승부를 예고했다.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는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 대해서 “그리스전이 승점을

만드시 따라 하는 경기였다면 아르헨티나전은 승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경기”라면서 “스페인과 평가전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선전을 예고했다. 오른쪽 풀백으로 풀타임을 편 차두리(프라이부르크)는 “오늘이 결승전이라는 생각으로 뛰었다. 중요한 경기에서 이겨 기쁘다”면서 “하지만 어차피 나이지리아와 마지막 경기에서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선제 결승골의 주인공 이정수(가시마도) “승리의 기쁨은 오늘까지만 만끽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준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를 이기면 좋겠지만 비기더라도 16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니 버틸 때까지 버텨볼 생각이다”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연필뉴스

그리스전 10가구 중 6가구 시청

월드컵 이모저모

역대 한국경기 중 여섯번째

12일 밤 SBS가 단독 중계한 월드컵 한국과 그리스전의 시청률이 전국가구 기준으로 59.8%를 기록했다고 시청률 조사기관 TNmS가 13일 밝혔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경기 종료시점인 10시18분으로 70.8%까지 올라갔으며 전반전은 59.0%, 후반전은 67.2%였다. 이날 경기 시청률은 TNmS가 집계한 역대 월드컵 경기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장 높았던 때는 2006년 월드컵의 한국 대 토고 경기로, 73.7%에 달했으며 이어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이탈리아 전(66.7%), 한국 대 폴란드(66.1%), 한국 대 스페인(65.5%), 한국 대 독일(64.8%) 순이었다.

그리스 선수들이 함께 관람하며 공동 응원전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STX조선 임직원들과 그리스 선수 30여명은 이날 경남 진해시의 이 회사 마린센터에 모여 맥주 파티를 가진 뒤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그리스 선수들은 그리스 대표팀 유니폼을 준비했으며, STX 임직원들은 붉은 옷을 입고 응원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잉글랜드-미국 1-1 무승부

1950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미국이 0-1로 졌던 아픔을 60년 만에 되갚으려던 잉글랜드의 설욕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잉글랜드와 미국은 13일(이하 한국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의 로열 바포프 경기장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한국 강했다” 日 대서특필

12일(한국시각)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B조 예선 1차전에서 한국이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국은 강했다’며 대서특필했다.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히치’는 13일 인터넷판에서 한국의 패승 소식을 전하면서 ‘아시아의 영웅’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아프리카대륙 최남단에 서 익숙한 ‘대~한민국’ 구호가 메아리쳤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한 뒤 역시 에이스 박지성이 승리를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아르헨 베론 한국전 불투명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과 맞붙는 우승후보 아르헨티나의 중앙 미드필더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에스투디안테스)이 장판지를 다쳐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13일(한국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베론은 이날 새벽 끝난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서 후반 29분 오른쪽 장판지에 통증을 느끼면서 막시 로드리게스(리버풀)과 교체됐다. 베론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통해 “부상은 심각하지 않다. 근육에 경련이 왔을 뿐이다. 그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STX-그리스 선수들과 응원전

STX조선해양은 12일 열린 한국-그리스의 남아공 월드컵 경기를 임직원들과

한국, 에니에아마를 뚫어라

〈나이지리아 골키퍼〉

‘날개 단 거미손’ 아르헨전 신들린 선방... MVP 선정

‘슈퍼 이글스’의 또 다른 날개인 골키퍼 빈센트 에니에아마(28·하포엘 텔아비브)가 신기에 가까운 원맨쇼를 펼치면서 23일 새벽 3시30분(이하 한국시각) 나이지리아와 B조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 한국 대표팀이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엘리스파크 스타디움에서 끝난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대회 B조 예선 1차전 경기에서 에니에아마는 아르헨티나의 파상공세를 뚫을 날려 여러 차례 막아내 ‘이 경기의 선수’(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아르헨티나의 1-0 승리로 끝난 경기에서 패한 팀의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히기는 이례적으로 그만큼 에니에아마의 선방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날 잉글랜드와 미국의 C조 경기에서 잉글랜드 골키퍼 로버트 그린(20·웨스트햄)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



질러 잉글랜드가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면서 에니에아마의 활약상은 더욱 빛났다. 에니에아마는 이날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콘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 등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공격진을 맞아 6차례나 선방을 펼쳤고 특히 ‘원발의 달인’ 메시가 감각적으로 감아 찬 슈팅을 네 차례나 막아냈다. 전반 6분 코너킥 때 가브리엘 에인세(마르세유)에게 헤딩골을 헌납했지만 수비가 에인세를 완전히 놓쳐 벌어진 일이었고 문전 혼란에 집중했던 에니에아마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라르스 라이르베르 나이지리아 감독은

“1점만 주고 패배 다행”이라며 에니에아마의 활약을 높게 칭찬했고 ‘적장’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도 에니에아마의 활약상에 혀를 내둘렀다. 이스라엘 프로축구 하포엘 텔아비브에서 활약 중인 에니에아마는 키는 180cm로 큰 편은 아니나 동물적인 감각과 놀라운 손발력을 발휘, 프로 리그와 A매치에서 수많은 선방을 펼쳤고 아

프리카 최고 골키퍼로 자리매김했다. 2002년부터 A매치에 출전, 이날 경기가 56번째 경기였다. ‘양박 쌍용’을 앞세워 나이지리아 문전을 두드릴 대표팀도 에니에아마의 선방이 걸려온 게 사실.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실적으로 17일 아르헨티나보다는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울인’ 해야하고 가능한 많은 득점을 올려야 하기에 에니에아마가 이끄는 나이지리아 수비의 약점을 치밀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연필뉴스